

제 113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法人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13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遏] ① 蝮 ② 闕 ③ 辣 ④ 褐
2. [櫛] ① 繡 ② 蓼 ③ 漱 ④ 倏
3. [弭] ① 糜 ② 餌 ③ 迤 ④ 芎
4. [覈] ① 檄 ② 邀 ③ 赳 ④ 銹
5. [圻] ① 痘 ② 郟 ③ 蛋 ④ 耐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紋] ① 芻 ② 們 ③ 眈 ④ 吻
7. [肌] ① 羈 ② 夔 ③ 瞋 ④ 祗
8. [唳] ① 穢 ② 賚 ③ 棟 ④ 嗇
9. [瀨] ① 賚 ② 犁 ③ 磊 ④ 牢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酣] ① 樂 ② 忱 ③ 疢 ④ 溺
11. [叱] ① 詹 ② 誠 ③ 訖 ④ 譴
12. [檻] ① 圈 ② 回 ③ 圖 ④ 圃
13. [驟] ① 騶 ② 駝 ③ 馳 ④ 駟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哀 ② 衰 ③ 襄 ④ 衷
15. ① 那 ② 祁 ③ 鄙 ④ 鄉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嘶號 : 사호 ② 葳備 : 천비
 ③ 菟絲 : 토사 ④ 安謐 : 안밀
17. ① 蓮藕 : 연우 ② 沸騰 : 비등
 ③ 銜學 : 현학 ④ 芟除 : 염제
18. ① 哮吼 : 효후 ② 龕室 : 함실
 ③ 慵惰 : 용타 ④ 嗚咽 : 오열
19. ① 禪衣 : 곤의 ② 槍鋌 : 창필
 ③ 漸漬 : 점치 ④ 矧笑 : 신소
20. ① 混淆 : 혼효 ② 塶塔 : 전탑
 ③ 廐肥 : 구비 ④ 羹楛 : 갱업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사람이 흥분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고르지 못하게 된다.
 ① 驀撲 ② 脈搏 ③ 脈撲 ④ 驀搏
 22. 물일을 자꾸 하다 보면 손에 [습진]이 생기기가 쉽다.
 ① 濕疹 ② 褶疹 ③ 濕津 ④ 褶津
 23. 새끼 거북이의 [파행]하는 모습은 몹시 귀엽다.
 ① 婆行 ② 跛行 ③ 擺行 ④ 爬行
 24. [뇌졸중]은 뇌혈관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① 腦卒中 ② 腦猝重 ③ 腦卒重 ④ 腦猝中
 25. [호리]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 리가 될 수도 있다.
 ① 弧釐 ② 毫裏 ③ 毫釐 ④ 弧裏
 26. 그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간다.
 ① 緞鸞 ② 緞鸞 ③ 團鸞 ④ 團鸞
 27. 전시장 폐관 시간에 쫓겨 그림을 [별견]할 수밖에 없었다.
 ① 黻見 ② 別見 ③ 鼈見 ④ 瞥見
-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그들은 공룡 멸종의 원인을 [] 충돌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① 魚缸 ② 隕石 ③ 名銜 ④ 暗礁
 29. 그 목공은 새로 지은 집의 출입문에 []을/를 틀었다.
 ① 虹霓 ② 旱魃 ③ 糯餅 ④ 疲斃
 30. 그를 만나러 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기가 []와/과 같았다.
 ① 終熄 ② 柳絮 ③ 荏苒 ④ 拋棄
 31.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의 []을/를 준비하고 있다.
 ① 禘嘗 ② 晬宴 ③ 輟朝 ④ 尺牘
 32. 사진 속 사찰은 한국 전쟁 때 이미 []되었다.
 ① 瀟灑 ② 發靱 ③ 爻象 ④ 灰燼
 33. 그의 성미가 남달리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① 乖復 ② 卜筮 ③ 扼腕 ④ 蠡測

34. 시외삼촌댁은 스물셋에 시외삼촌을 여의고 []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 ① 蠶婦 ② 懶婦 ③ 孀婦 ④ 嫡婦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박속같이 희고 고르게 박힌 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辭賦 ② 瓠犀 ③ 嗅覺 ④ 筍子

36. 소금에 절인 채소.

- ① 蕨菜 ② 菹醢 ③ 韭菹 ④ 鹽菜

37. 언덕과 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① 岡巒 ② 崔嵬 ③ 崎嶇 ④ 罕罔

38.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 ① 翟衣 ② 翎毛 ③ 摹印 ④ 翅果

39.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남.

- ① 洽足 ② 浚滾 ③ 洶湧 ④ 湟玷

40. 성균관과 문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① 穰田 ② 山墅 ③ 菰根 ④ 泮宮

4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장소.

- ① 樵汲 ② 鯉庭 ③ 仰韶 ④ 深邃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櫛風沐雨]

- ① 빗살처럼 줄지어 뻑뻑하게 늘어서 있음.
② 나무로 만든 사람 형상.
③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태도.
④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함.

43. [閩外之臣]

- ① '장군'을 이르는 말.
② 문무를 다 갖추어 장수와 재상의 벼슬을 모두 지낸다는 것.
③ 임금의 유언으로 나라의 뒷일을 부탁받은 대신.
④ 평민이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

44. [蝸牛角上]

- ① 자그마한 일로 다투는 형세.
② 가운데귀의 안으로부터 속귀의 달팽이관으로 통하는 구멍.
③ 세상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풍수지리에서, 누운 소처럼 보이는 산의 모양을 이르는 말.

45. [僧梳]

- ①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불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단.
② 종교와 신앙을 위하여 특별한 修行을 하는 승려의 단체.
③ 빗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빗.
④ 필요 없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茶山の 姓은 丁氏요 名은 若鏞이니 正宗朝에 登科하여 官至承旨하니라 嘗以(㉠)으로 入內閣하여 大被器賞 하니 由是로 忌疾者衆이라 坐兄若鍾獄하여 流康津하여 十九年에 始還이라 公이 ㉡적거無事에 研究古今하고 留心民生國計하여 討論著述이 窮源極 ㉢委하니 ㉣要爲有用之學하여 而皆可爲後世法이라 若牧民心書·欽欽新書· ㉤경세유표·田制考等諸書가 是也라
《梅泉野錄》

46.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 ① 文武兼全 ② 股肱之臣
③ 腹心之臣 ④ 抄啓文臣

47. 문맥상 ㉠을 漢字로 바르게 쓴 것은?

- ① 積居 ② 寂居 ③ 謫居 ④ 適居

48. 문맥상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시들다 ② 쌓다
③ 자세하다 ④ 맡기다

4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이 문맥상 ㉢의 뜻과 다른 것은?

- ① 要領 ② 要緊 ③ 要諦 ④ 要償

50. ㉤을 漢字로 바르게 쓴 것은?

- ① 經世類表 ② 經世遺表
③ 經世類票 ④ 經世遺票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唵 ()
- 주2. 埭 ()
- 주3. 搭 ()
- 주4. 鈐 ()
- 주5. 禪 ()
- 주6. 繹 ()
- 주7. 焮 ()
- 주8. 懊 ()
- 주9. 噉 ()
- 주10. 檣 ()
- 주11. 葩 ()
- 주12. 垆 ()
- 주13. 泉 ()
- 주14. 驢 ()
- 주15. 粢 ()
- 주16. 融 ()
- 주17. 狎 ()
- 주18. 颺 ()
- 주19. 幄 ()
- 주20. 柝 ()
- 주21. 詆 ()
- 주22. 璿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胥 ()
- 주24. 匏 ()
- 주25. 黻 ()
- 주26. 瞿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짚 양 ()
- 주28. 끌어모을 루 ()
- 주29. 질길 인 ()
- 주30. 어렵פות할 황 ()
- 주31. 두근거릴 계 ()

- 주32. 옷자락 거 ()
- 주33. 닭소리 악 ()
- 주34. 수척할 초 ()
- 주35. 돌쇠뇌 흥 ()
- 주36. 줄 형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偈	飭	華	糜	錮	絢	唄	狄
------	---	---	---	---	---	---	---	---

- 주37. 戒○ 禁○ 申○ ()
- 주38. 夷○ 蠻○ 戎○ ()
- 주39. ○爛 食○ ○粥 ()
- 주40. 寶○ ○頌 梵○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戇朴 ()
- 주42. 狼戾 ()
- 주43. 靡寧 ()
- 주44. 摧碎 ()
- 주45. 諛吉 ()
- 주46. 恬靜 ()
- 주47. 蟋蟀 ()
- 주48. 嫩葉 ()
- 주49. 陟岵 ()
- 주50. 僵仆 ()
- 주51. 惆愴 ()
- 주52. 執贄 ()
- 주53. 雲髻 ()
- 주54. 瞻賑 ()
- 주55. 摺帖 ()
- 주56. 春煦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삽시]라는 한자어보다는 '뭇은 감'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다. ()
- 주58. 아버지는 제사상 위에 [삽시]하시고 일어나서 절을 하셨다. ()
- 주59.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효시]는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
- 주60. 예전에, 국법을 어긴 사람은 [효시]로 처형하기도 했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그녀는 甚한 입덧으로 벌써 며칠째 嚙水不入하고 누워 있다. (→)
- 주62. 그는 平生을 窮迫히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魏縮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
- 주63. 警察은 이미 犯人의 身併을 確保하였다. (→)
- 주64. 동생은 新婚살림을 多世臺 住宅에서 始作했다. (→)
- 주65. 新進氣銳의 學徒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國政에 容弁할 處地가 아니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경갈]: 돈이나 물건 따위가 바닥이 나다 없어짐. ()
- 주67. [취람]: 먼 산에 끼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흐릿한 기운. ()
- 주68. [타과]: 이 핑계 저 핑계로 기한을 끌어 나감. ()
- 주69. [배기판]: 내연 기관이나 열기관에서 나오는 가스나 증기 따위를 뽑아내기 위하여 구멍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밸브. ()
- 주70. [어문]: 싫증이 나도록 들음. ()
- 주71. [인멸]: 자취도 없이 모두 없어짐. 또는 그렇게 없앴. ()
- 주72. [와굴]: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악한 따위의 무리가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 ()
- 주73. [굉상]: 오래 삶과 일찍 죽음. ()
- 주74. [견각]: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뒤뚱뒤뚱 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 주75. [메별]: 소매를 잡고 헤어진다는 뜻으로, 섭섭히 헤어짐을 이르는 말.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원인 치료와 체질 개선을 주로 하는 동양 의학에서는 [명현] 반응을 하나의 호전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주77. 왕이 [면류관]을 찰락찰락하며 즉위식장으로 들어섰다. ()
- 주78. 그녀가 입은 한복에서 [은근]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이 풍긴다. ()
- 주79. 너, 그렇게 [급살] 맛을 짓만 하고 다니지 마라. ()
- 주80. 아기가 오랫동안 젖을 물지 않는 경우에는 [착유기]로 엄마의 젖을 짜서 컵에 담아 먹이는 방법도 있다. ()
- 주81. [기상나팔] 소리에 병사들은 뺨뺨뺨 일어나 옷을 입었다. ()
- 주82. 우리 둘째는 성적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일이 없어요. ()
- 주83. 이 사진첩을 들추니 아내와의 연애 시절을 [반추]하게 된다. ()
- 주84. 그녀는 기이한 [습벽]을 지녔다. ()
- 주85. 에이디에이치디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기분 장애에는 불쾌 기분 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이 있다. ()
- 주86. 채식성 동물이 주로 [탄저병]에 걸린다. ()
- 주87. 이 작품은 단편적인 사건의 극화를 통해 작자의 인생관을 [피력]하고 있다. ()
- 주88. 몸을 뒤척일 때마다 침대 [용수철]이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 ()
- 주89. 그의 [표독]한 눈에는 저주의 빛이 가득 찼다. ()
- 주90. 두 사람이 오랫동안 [적조]했기 때문에 할 말도 그만큼 많았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故○事端] 일부러 말썽이 될 일을 일으킴. ()
- 주92. [乘○之性] 타고난 천성. ()
- 주93. [川○漲溢] 비가 많이 와서 개천물이 넘쳐흐름. ()
- 주94. [抱頭鼠○] 무서워서 머리를 싸쥐고 얼른 숨음. ()
- 주95. [○躬盡瘁] 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 ()
- 주96. [○轍鮒魚]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거나 몹시 고단하고 웅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 ()
- 주97. [○毛兔角]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르는 말. ()
- 주98. [獻○之誠] 정성을 다하여 남에게 선물이나 의견을 올리는 마음. ()
- 주99. [孤枕單○] 젊은 여자가 홀로 쓸쓸히 자는 잠자리를 이르는 말. ()
- 주100. [萬○俱寂] 아무 소리도 없이 잠잠하여 아주 고요함.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왕은 [遼東豕]와 같은 진귀한 물건을 사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 ()
- 주102. 병원 영안실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유가족들의 [呱呱之聲]이 들려왔다. ()
- 주103. [波瀾重疊]했던 젊은 시절의 회상에 잠겼다. ()
- 주104. 어머니는 막내아우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鳧趨雀躍]하셨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모르는 내게 [머리와 꼬리를 잘라 버리고] 중간만 이야기하니 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
- 주106.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말해] 소문을 퍼뜨려 비밀이 없다. ()
- 주107.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 된다. ()
- 주108. [기러기 발자국은 눈이 녹으면 없어지듯이,] 인생의 자취도 눈 녹듯이 사라지겠지!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文質彬彬 ()
- 주110. 白飯葱湯 ()
- 주111. 涅而不緇 ()
- 주112. 煙霞痼疾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未有窪溝 而產神蛟 ()
- 주114. 始用升授 還以斗容 ()
- 주115. 輕彼薄楮 尙對舉 ()
- 주116. 三尺髯 食令監 ()

※ 문장의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獨矣亦及而者以於與所且之也

주117.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四方不能專對 雖多 ○奚以爲 《論語》
()

주118. 所謂誠其意○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謂自謙 故 君子 必慎其獨也 《大學》
()

주119.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民由之 不得志 ○行其道 《孟子》
()

주120. 高句麗常○春三月三日 祭天○山川神 《三國史記》
()

※ 문장의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慎舒修衰風少治興正爲色産貪

주121.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之者疾 用之者○ 則財恒足矣 《大學》
()

주122. 官怠於宦成 病加於小愈 禍生於懈惰 孝○於妻子 察此四者 ○終如始 《小學》
()

주123. 避○如避讐 避○如避箭 《明心寶鑑》
()

주124. 人之性惡 必將待師法然後○ 得禮義然後○ 《荀子》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古者 [出逮恥之之也言不不躬] 《論語》

국역: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것은 몸소 실천함이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해서였다.

주126. [天之往印授三符理乃遣個] 《三國遺事》

국역: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어 가서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주127. 其聞道也 [乎之從而吾吾先師固] 《師說》

국역: 그가 도를 들은 것이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던 나는 그를 따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

주128. 學問之道 [而其求無放他矣心已] 《孟子》

국역: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따름이다.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才俊人 宜學恭謹] 《象村集》
()

주130. [多言數窮 不如守中] 《老子》
()

주131. [篤初誠美 慎終宜令] <千字文>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山中問答 - 李白
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①別有天地非人間

(나) ①送元二使安西 - 王維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②故人

(다) 有客 - (㉠)
有客清平寺 春山③임의遊
鳥啼孤塔靜 花落小溪流
④佳菜知時秀 香菌過雨柔
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주132. (가)의 주제를 쓰시오.
()

주133. ㉠을 국역하시오.
()

주134. ㉡을 국역하시오.
()

주135. 문맥상 ㉢의 뜻을 쓰시오.
()

주136. 字는 '悅卿', 號는 '梅月堂'인 ㉣의 姓名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7. '마음대로 하다'는 뜻을 지닌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8. ㉥을 국역하시오.
()

주139. (다)의 韻字를 모두 찾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제113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②	6	③	11	④	16	①	21	②	26	③	31	②	36	④	41	②	46	④
2	④	7	④	12	①	17	④	22	①	27	④	32	④	37	①	42	④	47	③
3	①	8	②	13	③	18	②	23	④	28	②	33	①	38	②	43	①	48	③
4	③	9	②	14	①	19	③	24	①	29	①	34	③	39	③	44	③	49	④
5	②	10	①	15	②	20	④	25	③	30	②	35	②	40	④	45	④	50	②

■ 주관식 I ■

주1	머금을 암	주21	꾸짖을 저	주41	당박	주61	嚼→勺	주81	起牀喇叭
주2	땅높고밝은곳 상	주22	아름다운옥 혼	주42	한려	주62	魏→菱	주82	意氣銷沈
주3	탈 탐	주23	肉	주43	미령	주63	併→柄	주83	反芻
주4	비녀장 검	주24	勺	주44	최쇄	주64	臺→帶	주84	習癖
주5	담제 담	주25	黑	주45	추길	주65	卉→喙	주85	躁鬱症
주6	풀어낼/실마리 역	주26	目	주46	염정	주66	罄竭	주86	炭疽病
주7	붉을/밝을 혁	주27	煬	주47	실슬	주67	翠嵐	주87	披瀝
주8	한할 오	주28	摟	주48	눈엽	주68	拖過	주88	龍鬚鐵
주9	기러기짜지어울 웅	주29	靱	주49	척호	주69	排氣瓣	주89	慄毒
주10	졸참나무 유	주30	慌	주50	강부	주70	飫聞	주90	積阻
주11	꽃 파	주31	悸	주51	추창	주71	湮/堙滅	주91	尋
주12	항아리 동	주32	裾	주52	집지	주72	窩窟	주92	彝
주13	나무새길 록	주33	喔	주53	운계	주73	彭殤	주93	渠
주14	나귀 려	주34	憔	주54	섬진	주74	蹇脚	주94	竄
주15	기장/사곡식 자	주35	鉗	주55	접첩	주75	袂別	주95	鞠
주16	물이깊고넓은모양 용	주36	滢	주56	춘후	주76	暝眩	주96	涸
주17	좋은개 령	주37	飭	주57	澁柿	주77	冕旒冠	주97	龜
주18	흘날릴 양	주38	狄	주58	插匙	주78	愍勲	주98	芹
주19	휘장 악	주39	糜	주59	嚙矢	주79	急煞	주99	衾
주20	열 탁	주40	偈	주60	梟示	주80	搾乳機	주100	籟

제113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者, 之	주135	친구 / 아는 사람
주102	X	주119	與, 獨	주136	金時習
주103	O	주120	以, 及	주137	任意
주104	O	주121	爲, 舒	주138	아름다운 나물은 때를 알아 돋아나고
주105	去頭截尾	주122	衰, 慎	주139	遊, 流, 柔, 愁
주106	逢人輒說/卽說	주123	色, 風	주140	逆旅
주107	得魚忘筌	주124	正, 治	주141	진실로 량
주108	雪泥鴻爪	주125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주142	煙景
주109	겉모양의 아름다움과 속내가 서로 잘 어울림.	주126	乃授天符印三個 遣往理之	주143	謝靈運
주110	반찬이 없는 검소한 음식.	주127	固先乎吾 吾從而師之	주144	아름다운 자리를 펴 꽃 앞에 앉고
주111	어진 사람은 쉽게 악에 물들지 아니함.	주128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주145	浮生若夢
주112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질.	주129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마땅히 공손함과 삼감을 배워야 한다.	주146	어찌 안
주113	개천에서 용 난다.	주130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해지니 중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주147	㉠: 徐, ㉡: 疾
주114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주131	처음을 독실하게 함이 진실로 아름답고 마무리를 삼가서 마땅히 좋게 하라.	주148	손에서 터득하여 마음으로 호응하는 것이어서
주115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주132	세속을 벗어난 자연 속의 한가로운 삶.	주149	교묘한 기술이 그 사이에 있으니
주116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	주133	인간 세상이 아니라 별천지라.	주150	이 때문에 나이가 칠십에 이르러 늙을 때까지 수레바퀴를 꺾고 있습니다.
주117	於, 亦	주134	안서로 사신 가는 원이를 보내며		